

성장소설 문법으로 바라본 'BTS 서사'

'BTS Narrative' Read as a Coming-of-Age Novel

한승우*

국문요약 본 연구는 BTS가 지난 10년간 보여준 발자취가 성장소설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으로부터 시작된다. 꿈을 좇아 지방에서 올라온 소년들이 수많은 시련을 극복해 가며, 국내의 정상을 넘어 세계의 주류 무대로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극적인 성장소설의 구성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다. 힙합과 아이돌의 중간에 선 경계인으로서 음악계의 타자가 되지만, 작은 소속사는 그들을 방어해 줄 힘이 부족했다. 이에 BTS는 스스로의 열정과 노력을 음악에 담아 팬들을 향해 끊임없이 발신하였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획일화와 폭력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위로의 메시지로 수신하였다. BTS의 이야기는 ARMY에게 적극적으로 해석되면서 희망의 메시지와 연대의 가능성으로 읽혔고, 이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젊은이들의 성장소설로 완성되었다. BTS와 A.R.M.Y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그동안 스타와 팬덤이 보여주었던 수직형 소통을 거부하고, 수평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문화적 표본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BTS, 성장소설, 신자유주의, 텍스트의 즐거움, A.R.M.Y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조교수.

차례

1. 들어가며
2. 로컬에서 자라난 B급의 음악 소년들
3. 신자유주의 물결 속 청년들과의 공명
4. BTS와 A.R.M.Y가 만들어낸 우주
5. 나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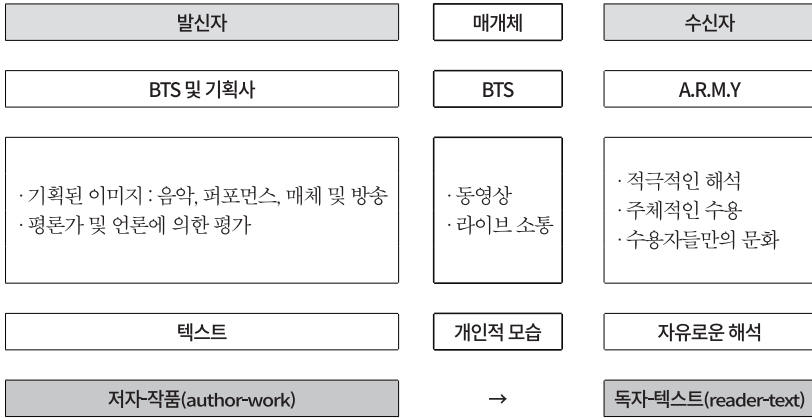
1. 들어가며

BTS는 데뷔 후 10년 동안 국내 정상의 자리는 물론 세계 주류 무대 진출까지 성공시키며, 아티스트로서의 눈부신 발전을 함께 이루어낸 입지전적인 그룹이 되었다. BTS의 이 모든 과정들은 거의 대부분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이를 통해 팬덤fandom A.R.M.Y는 BTS를 하나의 텍스트처럼 읽어가는 중이다.

롤랑 바르트는 독자가 책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들이 생산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즐거움이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텍스트는 보편적이고 고정된 의미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독자-텍스트readertext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읽는 이는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생산자가 될 수 있다.⁰¹ 이로써 텍스트는 정해진 의미로 고착되지 않고 독자에 의해 해석되면서, 기존의 모든 해석과 비평들을 뛰어넘는 현실 변형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BTS의 팬덤 A.R.M.Y는 이러한 주체적 독자로서 BTS의 서사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A.R.M.Y는 메시지를 성실하게 해석하는 훌륭한 독자로 존재한다. 보통의 K-pop의 팬덤들이 기획사가

01 롤랑 바르트, 김희영,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02, 43~44쪽.

만들어놓은 이미지만을 쫓는 것에 비해, 이들은 자신들의 스타를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들만의 의미로 재평가하고 있다.



BTS 역시 K-pop에 속해있는 보이 그룹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여타의 K-pop 스타들이 하나의 전략으로 간주했던 신비주의와 같은 비밀스러운 스타 만들기로부터 탈피하여, 개인적이면서도 사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 및 라이브 자료들을 공개하였다. 이런 영상들은 또다시 A.R.M.Y에 의해 새롭게 편집되거나 외국어로 번역되어 제2의 창작물로 재생산되고,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소개되면서 자연스럽게 아카이브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동영상 속에서 멤버들의 캐릭터는 자연스럽게 구축되어 왔다. 모두를 이기는 실세 막내, 가장 구박받지만 마음 좋은 만형, 무기력하고 예민한 멤버,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힘든 사차원, 한없이 밝고 귀여운 사람, 뭐든 만지면 부술 정도로 서툴지만 능력자인 멤버 등⁰²의 고정 캐릭터와 역할은 자연인으로서의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진다. 잡지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 정갈한 스타가 아닌 옆집 소년 혹은 친구와 같은 모습,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

02 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1, 100쪽.

며 거대한 무대를 만들어가는 형제들의 모습은 곧 그들을 지지하는 A.R.M.Y에게 친근감을 불러일으킨다.

평소의 소탈한 면모, 땀으로 범벅이 된 연습 영상, 화려한 무대 위의 모습, 공연 이후의 라이브 방송은 기-승-전-결이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서사로 작동한다.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전송된 덕분에 A.R.M.Y는 BTS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직조된 이야기처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BTS라는 텍스트는 A.R.M.Y라는 성실한 독자를 만나 성장소설의 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좋은 성장소설이 그러하듯이, BTS라는 텍스트는 모범적 성장의 모델이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BTS가 지난 10여 년간 보여준 발자취가 성장소설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늘 적극적인 독자로서 그 곁을 지키고 있는 A.R.M.Y를 함께 조명하고 있다.

2. 로컬에서 자라난 B급의 음악 소년들

BTS의 시작은 하찮고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SM, YG, JYP와 같은 거대 기업이 가요 시장을 독식하던 생태계에서 자본도 경험도 없는 신생 소기업이었던 빅히트가 그들의 모태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애초부터 비주류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 그룹의 육성과 기획을 도맡고 있던 방시혁과 피독은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명성을 쌓아온 실력파라고는 일컬어졌으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 있어서는 초보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던 그들에게 시행착오는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생존 방식

을 고안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다. 대기업과 똑같은 전략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절실함으로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형식의 ‘힙합 보이 그룹’이라는 낯선 기획을 떠올리게 된다.

우선, “언더 힙합신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은 고등학생 래퍼”⁰³ RM을 영입 하면서 그 첫 단추가 끼워졌고, 다른 연습생들을 모집하면서 나머지 단추를 모두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 모인 연습생들은 체계적 훈련이나 스타가 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작은 기획사의 모습에 실망하기 일췌였고, 포기를 선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방시혁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근성과 열의를 가진 멤버들을 가려내기 위한 진통의 시간을 가졌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진, 슈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최종 결성된다.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은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과 억압을 우리가 막아내겠다”는 심오한 뜻⁰⁴을 지녔으나, 대중들에게는 B급 정서가 묻어나는 이름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다.⁰⁵ 추후 BTS라는 이름이 간직한 의미는 그들의 음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체성의 근본으로 작동한다.

방시혁은 데뷔 전부터 멤버들이 자신들의 음악에 맞는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기를 바랐다.⁰⁶ 덕분에 데뷔 전부터 BTS는 직접 가사와 곡 작업 등에 동

03 박영웅, 「방시혁, 오디션 통해 힙합그룹 방탄소년단 제작」, 『스타뉴스』, 2010.9.2.

04 BTS라는 영어식 이름의 뜻은 추후에 그 의미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빅히트는 공식 로고를 바꾸면서 보다 젊은 의미를 추가하고자 했으나, 정작 멤버들은 여전히 Bulletproof Boys를 강조하면서 억압과 편견을 막는다는 의미를 이름의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추영준,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우리도 'BTS'로...」, 『세계일보』, 2017.11.23.) “많은 사람이 비하인드 더 씬 (Behind The Scene)이라고 알지만 Bulletproof Boys, 한국어로 방탄소년단이란 뜻이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생각해도 좋다.” (이미영, 「방탄소년단, 미(美) 'AMAs' 입성 '믿기지 않는다」, 『조아뉴스』, 2017.11.20.)

05 “아이들이 무슨 방탄유리냐?”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이름 갖고 ‘촌티 난다’ ‘유치하다’ 비아냥도 나왔다. (강동철, 「이 남자의 정체는... 방탄 아빠」, 『조선일보』, 2017.12.1.)

06 방시혁은 BTS의 키워드를 ‘성장’이라고 설명한다. (〈KBS 명견만리〉, KBS, 2018.6.3.)

참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또래의 고민과 연습생으로서의 고통을 담아낼 수가 있었다. 보통의 K-pop 아이들의 경우, 완벽하게 만든 이미지의 가수들을 잘 짜여진 틀에 맞춰 세련되게 조련한 후 대중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었으나, 빅히트는 웬만한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일종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찾아갔다. 작은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였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우회로는 BTS 멤버들에게 아티스트로서의 진지한 고민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는 ‘자생력’이라는 특별한 경쟁력을 만들어주었다.

이렇듯 초창기부터 시작된 음악인으로서의 진지한 고민과 열정들은 데뷔 이전에 업로드되었던 블로그의 동영상에서부터 드러난다.⁰⁷ 데뷔 이전에 남겨진 동영상 일지일기에는 끝없는 연습과 멤버 탈락에 대한 불안감, 꿈에 대한 불확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습에 매진하면서 자신들의 꿈인 음악을 쫓아가는 순수한 모습들이 담겨있다. 아무렇게나 고정되어 있는 웹캠을 향해 젓살도 빠지지 않은 모습의 소년들이 던지는 음악에 대한 고민과 프로가 되기 위한 고군분투의 모습은 어떠한 연출이나 보정, 편집도 없는 ‘날것’ 그대로를 보여준다. 또한 아직은 보호의 대상인 소년 멤버들이 서로를 이끌어주고 보살피주면서 보호자와 롤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하면서 단단한 ‘형제애’를 싹 틔우는 모습도 전달된다.

작은 소속사의 초라한 연습생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재능은 무한히 반짝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진정성은 초창기 ‘A.R.M.Y’ 결성의 큰 동력이 된

07 이 블로그는 2015년에 폐쇄되었고,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였다. 그러나 이전의 영상들은 팬들에 의해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확인해 볼 수가 있다.

다.⁰⁸ 당시에는 이런 영상들이 추후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들 자신도 몰랐겠지만, 뒤늦게 합류한 팬들마저 현재 그들이 이뤄낸 결과 뒤에 가로 놓인 스타가 아니던 시절의 노력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고 있다. BTS의 수많은 동영상들은 그들의 고고학적 자료가 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A.R.M.Y는 ‘성실’과 ‘진정성’이라는 일관성 있는 키워드를 도출해낸다. 데뷔 이전부터 현재까지를 관통하고 있는 일관된 모습은 A.R.M.Y가 자신의 스타에게 갖는 ‘존중감’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이로써 BTS라는 텍스트는 A.R.M.Y라는 성실한 독자를 만나 성장소설의 구성을 획득한다.

서울 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마마 머리카노! (What!) 마마 머리카노! (What!)

서울 강원부터 경상도 충청도부터 전라도. 우리가 와볼따고 전하랑께. (What!)
우린 멋져부러 허벌라께. 아재들 안녕하십니까. 내카모 고향이 대구 아입니까.
그캐서 오늘은 사투리 랩으로 머시마, 가시나 신경 쓰지 말고 한번 놀아봅시다.
(...중략...)

하모하모 갱상도 찍인다 아인교!! 아주라 마!! 우리가 어디 남인교!!
시방 머라고라? 호미 아찌아쓰까나. 전라도 씨부럼땡시 아구지 막혀브러싸야.
흑산도 흥어코 한방 잡수믄 된다. 온몸 구녕이란 구녕은 막 다 뚫릴 텃디.
거시기 뭣시기 음 괜찮겠소? 아직 팔구월 풍월 나 애가졌소.
무등산 수박 크기 20킬로 장사여. 걸만 봐도 딱 가시내 올릴 방탄여.

BTS, <팔도강산>, 《O!RUL8,2?》, 2013.

08 공식 팬클럽인 'A.R.M.Y'는 2014년 3월 29일 1기 팬클럽 창단식을 열며 결성되었다. (최지예, 「방탄소년단, 데뷔 10개월 만에 팬클럽 '아미' 창단식, 「마이데일리」, 2014.3.31.)

작은 소속사의 한계 이외에도 BTS가 가진 한계 지점은 또 있었다. <팔도강산>의 가사처럼 BTS 멤버들 중에는 한 명의 서울 출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서울의 주변 도시인 일산^{RM}과 과천^{진부터} 충청도^부, 전라도^{제이휴}, 부산^{지민}, 대구^{슈가}에서 자라난 로컬의 세례를 받은 소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BTS였다.⁰⁹ 당시 서울의 중앙 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세련된 도시 청년의 이미지가 우월하게 받아들여지던 때였다. 대부분의 아이돌 가수들은 로컬의 흔적인 사투리를 데뷔 전에 교정하고, 중앙 문화 중심지인 서울의 세련된 말투를 마스터한 후 대중 앞에 서게 마련이었다. 굳이 대중을 향한 스타는 자신이 탄생하고 성장한 고향을 밝힐 이유가 없다. 그러나 BTS는 달랐다. 자신들은 로컬에서 모인 특색 있는 소년들이라는 점을 오히려 자랑으로 삼았고, 동영상 및 방송에서도 ‘사투리’를 내뱉곤 한다.

나 전라남도 광주 baby, 내 발걸음이 산으로 간대도, 무등산 정상에 매일 매일,
 내 삶은 뜨겁지, 남쪽의 열기. 이열치열 법칙 포기란 없지.
 나 KIA 넣고 시동 걸어 미친 듯이 bounce, 오직 춤 하나로 가수란 큰 꿈을 키워,
 이젠 현실에서 음악과 무대 위에 뛰어. 다 봤지 열정을 담았지.
 내 광주 호시기다 전국 팔도는 기어. 날 불러면 시간은 7시 모여 집합!
 모두 다 눌러라 062-518.

BTS, <마 시티Ma City>, 《화양연화》 pt.2, 2015.

BTS는 꾸준히 자신이 성장해온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사랑을 내비친다.

09 일산, 과천, 부산, 대구, 광주광역시 등. 해외파 하나도 없는 토종 국내파, 그것도 비(非)서울 출신만 모인 아이돌 그룹이 2013년 꾸러졌다. (강동철, 「이 남자의 정체는… 방탄 아빠」, 『조선일보』, 2017.12.1.)

〈마 시티〉에서 제이홉은 그의 고향 광주를 의미하는 지역 전화번호 ‘062’와 함께 ‘518’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7시”라는 표현은 극우단체들이 사용하는 은어로 광주를 의미하는데, “모두 다 눌러라 062-518”이라고 응수하며 역사적 사건을 환기시킨다.¹⁰ 또한 슈가의 솔로 활동명인 ‘Agust D’는 대구Daegu 타운Town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¹¹ 이 역시 로컬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작명이다. RM은 UN 연설에서 “저는 한국의 서울 근교에 있는 일산에서 태어났습니다”¹²라는 말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꿈을 향해 서울로 온 어린 소년이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BTS는 자신들이 B급 로컬 문화권에서 태어난 음악인에게 씌워지는 선입견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서울 중심 문화를 평정하고, 점차 세계로 진출해 빌보드 차트를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후 해외 A.R.M.Y 들은 이들의 음악에 등장하는 지역과 뮤직비디오 속 공간들을 순례하며 ‘한국=서울’이라는 공식을 깨버린다.

지방에서 올라온 소년들은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신생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초라한 시작을 알렸다. 그야말로 열정 하나밖에 없는 ‘작은 것들’이 모인 무모한 소년들이었다. 한참 ‘수저론’이 급부상하던 시절이었기에, BTS의 모습은 A.R.M.Y에게 ‘흙수저’를 떠올리게 했다. 재력이나 권력을 가지지 못한 아버지 밑에서 꿈을 무기로 삼아 거대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무모한 소년의 서사를 연상시킬 만했다. 그들의 탄생은 연민을 불러왔고, A.R.M.Y는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로써 작고 초라한 것이 가장 크고 거대

10 제이홉은 5·18에 맞춰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양의 이모지(이모티콘과 이미지의 합성어)를 팬 커뮤니티인 ‘위버스’에 올렸고, 불과 4시간 만에 전 세계의 팬들이 1만3000개 이상의 5·18 추모 댓글을 다는 사건도 있었다. (정병호, 『BTS 제이홉 올해도 5.18 추모…광주정신 세계에 알렸다』, 『광주일보』, 2021.5.20.)

11 뜻은 해당 알파벳을 거꾸로하면 ‘D tsugA’이며, ‘D t’가 대구(Daegu) 타운(Town) 즉 슈가의 고향이고 ‘sugA’는 활동명 ‘슈가’ 알파벳이다. 즉 대구에서 온 슈가를 의미한다.

12 RM, 〈방탄소년단 UN 연설〉, 미국 유엔 본부, 2018.9.24.

해지는 극적인 이야기의 첫머리가 완성되고 있었다.

3. 신자유주의 물결 속 청년들과의 공명

BTS는 2013년 6월 12일 앨범 《2 COOL 4 SKOOL》로 쇼케이스를 개최한 후, 2013년 6월 13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데뷔 무대로 첫 선을 보인다. 짙은 눈 화장과 어설피 힙합 장신구들을 마구잡이로 걸친 모습은 잘 차려입고 정갈하게 꾸며진 거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아이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더군다나 그들이 보여준 음악 역시 보통의 아이돌이 보여주는 레퍼토리도 아니었다.

니 꿈이 뭐니 뭐니? 고작 이거니 고작 이거니 거니?

지겨운 지겨운 same day, 반복되는 매일에, 어른들과 부모님은 틀에 박힌 꿈을 주입해.

장래희망 넘버원. 공무원? 강요된 꿈은 아냐? 9회말 구원투수 시간낭비인 야자에 돌직구를 날려.

지옥 같은 사회에 반항해. 꿈을 특별사면 자신에게 물어봐. 니 꿈의 profile.

억압만 받던 인생 니 삶의 주어가 되어봐.

니가 꿈꿔온 니 모습이 뭐야? 지금 니 거울 속엔 누가 보여? I gotta say.

너의 길을 가라고. 단 하루를 살아도. 뭐라도 하라고. 나약함은 담아둬.

엄마 니 꿈은 뭐니?

BTS, 〈No More Dream〉, 《2 COOL 4 SKOOL》, 2013.

“야자에 돌직구”를 날리는 반항아들, “공무원”과 같은 뻘한 장래희망을 주입하는 어른들을 향해 대놓고 “반항”을 하는 나쁜 소년들은 지금이 “지옥 같은 사회”라고 말한다. 또한, “좋은 집”과 “좋은 차”가 행복일 수 있냐는 질문을 던지며, “니 삶의 주어”가 되어 스스로의 꿈을 찾아가려는 진지한 조언을 들려준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게 행복일 수 있을까?

In Seoul to the SKY, 부모님은 정말 행복해질까?

놀고 먹고 싶어. 교복 찢고 싶어.

Make money good money. 벌써 빼딱한 시선.

막연함뿐인 통장, 내 불행은 한도초과지.

공부하는 한숨 공장, 계속되는 돌려막기.

어른들이 하는 고백 너넨 참 편한 거래. 분에 넘치게 행복한 거래.

그럼 이렇게도 불행한 나는 뭐데? 공부 외엔 대화주제가 없어.

밖엔 나 같은 애가 넘쳐 똑같은 꼭두각시 인생. 도대체 누가 책임져줘?

어른들은 내게 말하지 힘든 건 지금뿐이라고, 조금 더 참으라고 나중에 하라고.

Everybody say NO!

더는 나중에란 말로 안 돼! 더는 남의 꿈에 갇혀 살지마!

BTS, 〈N.O〉, 《O!RUL8,2?》, 2013.

‘스쿨 3부작’¹³에서 들려준 BTS의 목소리는 10대들을 향한 근원적인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마음 속 파장과도 같았다. 조금씩 팬들은 그들의 거칠지

13 스쿨 3부작은 《2 COOL 4 SKOOL》(2013.6.12), 《O!RUL8,2?》(2013.9.11), 《Skool Luv Affair》(2014.2.12)를 말한다.

만 진정성 있는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보자는 그들의 외침은 비슷한 또래인 A.R.M.Y들을 일깨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좌절이 없는 것은 진정한 성장소설이 아니다.¹⁴ BTS에게 있어 성장의 걸림돌은 정체성의 근간인 ‘힙합’에 있었다. 일명 ‘B-Free 사건’¹⁵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한 사건이 된다. 힙합 평론가 김봉현이 RM, 슈가와 더불어 여러 힙합 가수들을 불러 모아 만든 자리에서 B-Free는 “여자들의 우상”이 되기 위해 “여자같이 입고 화장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비난한 후, BTS의 음악을 힙합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BTS를 가리켜 랩을 하는 아이돌에 불과한 것이지, 힙합 가수라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을 가한 것인데, 사실 B-Free의 지적은 BTS의 약점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었다. 애초에 아이들도 아닌, 그렇다고 힙합도 아닌, 이처럼 너무나도 애매한 설정부터가 거대한 모순을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B-Free가 날린 직격탄은 힙합계가 가진 BTS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사례였으며, 이 사건은 BTS에게도 큰 내상을 남긴 사건이었다.

BTS는 정면 도전을 선택한다. 결국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한국에서 자생한 장르가 아니므로 한국의 힙합 역시 아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본토에서 직접 힙합을 배워 전수해 오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본 것이다. BTS는 <아메리칸 허슬 라이프>¹⁶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본토의 흑인 래퍼들에게 직접 힙합의 정신과 음악 그리고 매너 등을 배우면서 정통 힙합 전수자가 될 것을 자처한다. 물론, 방송을 위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비

14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16쪽.

15 <B-Free Disses BTS>, 2013.11.24. (<https://www.youtube.com/watch?v=evfNBEEChek>)

16 2014년 7월부터 미국 LA에서 촬영된 프로그램으로, M.net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었다.

판도 있을 수 있겠으나, 힙합이라는 문화를 전수받기 위한 고군분투의 경험은 한국의 힙합 업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다. 낯선 미국에서 언어와 음식, 문화 등 모든 것들을 적응하고 배워나가며 몸으로 체득하고자 했던 이 과정은 한국에서 자생한 힙합 그룹들이 가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절차였고, BTS가 가진 힙합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로 힙합이 아니라며 비난하는 이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을 선사했고, 본토의 흑인 힙합을 체험한 아티스트라는 당위성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내적 갈등과 흠집이 난 정체성에 대한 상처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Damn 힙부심, 아이돌 랩퍼? Cut that 불씨.

어차피 본질은 아이돌 썬이라며 날 무시해.

쫓대 따위는 개주고 내 이름을 비웃지.

물타기와 무시밖에 모르는 니들이, how you kill me?

BTS, 〈BTS Cypher Part 1〉, 《O!RUL8,2?》, 2013.

Uh 이제 급이 달라진 놈, he knows and she knows.

모두의 관심대상 1호, 감탄은 일러 지켜봐 내 미래.

니가 무시한 만큼 난 성공의 길로 진행.

난 널 몰라 또 넌 날 몰라 제발 닥쳐주겠니.

나는 걱정 마, 좋아 너보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

예전부터 날 무시했던 친구들 다 어디 있어 we on.

이건 장난 같은 게 아냐 보여줄게.

BTS, 〈We On〉, 《O!RUL8,2?》, 2013.

거대 기업의 아이돌과의 경쟁에서도 밀리고, 더불어 힙합 동료들 사이에서도 배타당하면서 BTS는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철저한 ‘경계인’이 된다. 이런 상황은 BTS에게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에 더욱 집중하게 만들었다. 원래 힙합이라는 음악의 태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버텨낸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라고 할 때, 힙합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 그들은 발전하고 있었다. 끝까지 BTS는 힙합의 정체성을 놓지 않았다.

성장 소설 속 주인공들은 관습이나 인습에 의해 흔히 좌절을 맞아 인생을 좌초시킬 위기에 처하지만,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과도를 차례로 돌파하면서 자아를 발견하고 마침내 완성시켜 나아간다. 그가 속한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통과 의례가 수반되기 마련이고,¹⁷ BTS는 실력과 노력으로 무시와 냉대를 넘어서겠다는 약착같은 오기로 버텨낸다.

성장소설 속 주인공이 능숙함과 원숙함을 갖춰 나아갈 때마다 독자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응원하면서 몰입하게 되는 것처럼, BTS의 일련의 사건들은 A.R.M.Y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비난과 시련 속에서도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연민을 넘어,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불러왔다.

수십짜리 신발에 또 수백짜리 패딩. 수십짜리 시계에 또 으스스대지 괜히.
교육은 산으로 가고 학생도 산으로 가. 21세기 계급은 반으로 딱 나뉘져.
있는 자와 없는 자. 신은 자와 없는 자.
입은 자와 벗는 자. 또 기를 써서 얻는 자.
이게 뭐 일이니 유행에서 넌 밀리니? 때를 쓰고 애를 써서 얻어냈지, 찢리지?
가득 찬 패딩 마냥 욕심이 계속 차. 휘어지는 부모 등골을 봐도 넌 매몰차.

17 A. 반 겐넵·전경수,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31~32쪽.

친구는 다 있다고 즐라대니 안 사줄 수도 없다고. (Ayo baby) 철딱서니 없게 굴지 말아.

그깃 패딩 안 입는다고 얼어 죽진 않아. 패딩 안에 거위털을 채우기 전에.

니 머릿속 개념을 채우길. 늦기 전에.

BTS, <등골브레이커>, 《SKOOL LUV AFFAIR》, 2014.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 찾기에 매진할수록 저항 정신은 더욱 예리해졌고, 뼈뚫한 통찰력은 더욱 명확해졌다. 덕분에 보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가사들이 탄생될 수 있었다.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고가의 패딩이 유행하던 현상을 비판하는 <등골브레이커>에서는 어른들이 보여주던 과시와 속물성을 그대로 내면화한 젊은 세대의 모습을 지적한다. “꿈”을 찾고 싶지만, 결국 그 꿈은 어른들의 세계 속에 있으며, 가장 좋지 않은 모습만을 답습하는 젊은 세대들의 세대를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비판 대상에는 기성세대와 그들의 사회 질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경종도 포함되어 있었다.

금수저로 태어난 내 선생님. 알바 가면 열정페이.

학교 가면 선생님. 상사들은 행패.

언론에선 맨날 몇 포 세대. 룰 바꿔 change change.

황새들은 원해 원해.

BTS, <뱀새>, 《화양연화》 pt.2, 2015.

<뱀새>에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포기’라는 틀

에 가뒤퍼리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노래한다. 잘난 황새가 되기 위한 뱀새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쟁 안에서 결국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물”을 부쉬 버릴 힘이 없는 젊은이들은 부모님이 사준 비싼 패딩을 입고 클럽에서 놀면서 시간을 “탕진”(고민보다Go)하는 것 외에는 할 만한 것이 없다. 어른들이 말하는 포기의 세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한병철은 신자유주의가 던져주는 “넌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메시지는 사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가 가진 자기 착취사회를 가리기 위한 마법의 주문과 같다고 말한다.¹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환상은 철저한 자기 통제와 노력이 수반된다. 여가 시간을 줄여가며 자신을 더욱 옥죄고, 최고의 스펙을 위해 최선을 다 해온 젊은이는 곧 닿을 것만 같은 성공이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버린다. 사회의 시스템은 몰인정하게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들에게 곧바로 ‘N포 세대’라는 낙인을 찍어 패배자로 만든다. 이런 폭력적 상황 앞에서 젊은이들은 극심한 탈진burnout과 우울감에 시달린다. BTS는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 속 기성세대가 제시하는 견고한 틀이 가진 폭력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폭력적 질서 안에 갇히지 않기 위한 최고의 저항은 스스로가 하고 싶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BTS가 말하는 꿈을 향한 열정은 어른들이 말하는 환상을 향한 노력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BTS가 말하는 열정은 스스로가 바라 는 것, 자신이 가진 신념이 원하는 행복을 향해 “피, 땀, 눈물” 모두를 쏟아붓는 노력이다.

하루의 절반을 작업에 썩 썰어. 작업실에 썰어 살아. 청춘은 썩어가도.

18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5, 24쪽.

덕분에 모로 가도 달리는 성공가도. 소녀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썩 썩렁.

밤새 일했지 everyday. 니가 클럽에서 놀 때 yeah. 딴 녀석들과는 다르게.

(...중략...)

포 세대 5포 세대. 그럼 난 육포가 좋으니까 6포 세대.

언론과 어른들은 의지가 없다며 우릴 싹 주식처럼 매도해.

왜 해보기도 전에 죽여 개넌, enemy enemy enemy.

왜 벌써부터 고개를 숙여 받아, energy energy energy.

절대 마 포기, you know you not lonely.

BTS, 〈쩨어〉, 《화양연화》 pt.1, 2015.

BTS의 메시지에 주목한 A.R.M.Y는 우습고 별 볼일 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끝까지 달려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주장이 헛된 것이 아닌 진실성을 갖게 된 것에는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준 BTS의 영상들이 증거처럼 버티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연습생 시절부터 일상과 연습의 경계가 없을 정도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던 그들의 모습은 BTS가 외치는 꿈과 열정이 결코 공허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다. 이로써, BTS가 가진 정체성과 노래의 가사는 합일을 이루면서 A.R.M.Y와 공명하기에 이른다.

그들의 성장은 이제 소년을 넘어 청춘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BTS는 청춘 2부작¹⁹을 통해, 조금은 더 성숙한 청년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그들은 청춘이 가진 영광과 기쁨 대신, 어둠과 불안 그리고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란

19 청춘 2부작은 《화양연화》 pt.1(2015)와 《화양연화》 pt.2(2015)를 말한다. 이후 이 두 앨범을 하나로 묶어 나온 《화양연화 Young Forever》(2016)을 포함하여 청춘 3부작으로 부르기도 한다.

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사회 구조가 강요하는 헛된 희망 앞에서 “지금 행복한 가”(Intro),《화양연화》pt.1라는 근원적인 의문을 던지면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RUN)라며 위로한다.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우린 아직 젊고 어려”(NeverMind)라며, ‘우리들’의 연대를 보여준다.

4. BTS와 A.R.M.Y가 만들어낸 우주

앨범 《화양연화》pt.2는 미국 빌보드 200차트에서 171위에 링크되면서 빌보드 첫 입성을 이루었고,²⁰ 이후 발표된 〈DNA〉는 핫 100 85위 그리고 앨범 《LOVE YOURSELF 承 ‘Her’》는 빌보드 200에 7위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인다.

BTS의 성공은 곧 A.R.M.Y의 성공이었다. 그들의 성공은 결국 나와 같은 젊은 세대의 성공인 동시에, 가장 낮은 경계인이 이룬 성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함께 웃고 떠드는 가족과 같은 모습을 유지했다. 또, 최정상의 자리에서도 SNS를 통해 음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여전히 아티스트로서의 갈 길을 겸손한 자세로 이야기했다. 인기를 얻은 이후 초심을 잃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스타들과는 달리, 모든 성장은 팬들의 덕분이라는 점도 잊지 않았다. 거대한 상을 수상한 이후에는 바로 실시간 V로그를 통해 팬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자신들이 가진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발표한 《LOVE YOURSELF》3부작²¹에서 그들은 비로소 오랫동안

20 이정아, 「방탄소년단의 기록 질주,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SBS 연예뉴스』, 2017.10.8.

21 《LOVE YOURSELF》3부작은 《LOVE YOURSELF 承 ‘Her’》(2017), 《LOVE YOURSELF 轉 ‘Tear’》(2018), 《LOVE YOURSELF 結 ‘Answer’》(2018)를 말한다.

동안 고민해온 것들에서 찾아낸 자신들만의 해답을 들려준다. 〈DNA〉와 〈IDOL〉은 초창기 때부터 지속되어 온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응답이다. “흥”(흥탄소년단)이 넘치는 한국인의 유전자와 외래 음악이 만나 K-pop이 발생되었고, 이 안에서 “뉴 타입 오브 보이밴드”²²인 BTS가 탄생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BTS가 찾아낸 음악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 또한, 여전히 마음 안에는 “몇십 몇백 명의 내가 있”어 같등하고 고민하지만, “어차피 전부 다 나 이기에”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결론도 함께 내어 놓는다. 이 메시지는 그동안 경계와 모순, 비난과 소외를 모두 거친 이후에 깨닫게 된 성숙의 경지에서 내놓은 현답이었다.

Love myself.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니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린데.

BTS, 〈Love Myself〉, 《LOVE YOURSELF 結 'Answer'》, 2018.

빛나는 나를 소중한 내 영혼을 이제야 깨달아.

so I love me.

좀 부족해도 너무 아름다운 걸.

BTS, 〈Epiphany〉, 《LOVE YOURSELF 結 'Answer'》, 2018.

22 RM의 인터뷰, 〈인사이드 마이 유니버스(Inside my universe)〉, BANGTAN TV, 2021.9.27.

아프게 부딪히고 힘들게 맞서오면서 어느새 소년에서 청년이 된 그들은 ‘나’를 먼저 돌봐주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A.R.M.Y에게 전달한다. 힘들게 장벽을 넘어서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7명의 젊은이들의 메시지는 우울과 허탈 속에 있는 젊은이들과 경계에 선 모든 이들, 그리고 정체성에 위기를 겪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다. 개인은 모두 “소우주”와 같이 견고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며,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것이라는 BTS의 해답은 신자유주의가 가진 획일화와 강압, 그리고 폭력적인 강인함 등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²³ A.R.M.Y들은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여 연대하고, 소통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자연스럽고 상호적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²⁴ A.R.M.Y는 마치 성장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세상을 견뎌내며 성숙하는 훌륭한 독자들과 같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태지는 자신의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²⁵에서 BTS를 스페셜 게스트로 초대할 바 있다. BTS의 초창기 작품들이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의 불만과 학교 교육의 문제는 20년 전에 발표했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교실 이데아>를 떠올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로 BTS와 <교실 이데아>를 함께 부르는 무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진 음악적 지향점과 20년 이후에 탄생한 그룹 BTS의 지향점이 교차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들어가면

- 23 홍석경은 미국 팬들이 BTS의 부드러운 남성성을 해롭지 않은 것이며, 동시에 반 트럼프적이라고 말하는 대목에 집중한다. 개인 간의 무한한 경쟁을 독려하는 신자유주의적 성공 주체인 남성성의 대안으로 BTS가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석경, 앞의 책, 255쪽.)
- 24 BTS의 음악과 현상의 본질은 결국 공감과 위로를 이끌어내는 ‘보편성’에서 찾아야 하며, 그 보편성은 기존의 방송 권력이 아닌 팬들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파괴력이 거대하게 증폭되고 있다는 김영대의 분석에 동의한다. (김영대,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알에이치코리아, 2021, 358쪽.)
- 25 황혜진, 「방탄소년단 “서태지 선배님 25주년 콘서트 게스트 영광, 많이 배웠다”」, 『뉴스엔』, 2017.9.3.

고등학교를 지나 우릴 포장센터로 넘겨
 길보기 좋은 날 만들기 위해
 우릴 대학이란 포장지로 멋지게 싸버리지
 이젠 생각해 봐 “대학” 본 얼굴은 가린 채 근엄한 척할 시대가
 지나버린 건 좀 더 솔직해봐 넌 알 수 있어

서태지와 아이들, 〈교실 이데아〉, 《발해를 꿈꾸며》, 1994.

한국에서 대중가요의 내용이 사회·문화적 현상으로까지 부각되었던 대표 사례는 ‘서태지와 아이들’일 것이다. 이들은 3집에서 확실적인 교육 체제와 통일 문제 등을 비판했고, 4집에서는 자본주의의 병폐와 가출청소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했다. 서태지는 4집 앨범 발표장에서 “삭막한 현실의 굴레에서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의도를 밝혔고, 타이틀곡 〈컴백홈〉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좌표를 제시하기 위해 만든 작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²⁶ 〈컴백홈〉은 가사의 메시지처럼 가출 청소년들을 집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캠페인적 효과를 보이며, 대중문화의 힘을 깨우쳐 주었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이 주는 파급 효과는 문화의 힘에 대한 경험이 적었던 우리 사회에 다소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왔다. 사회의 규율과 어른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선 그들의 목소리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향한 일종의 ‘선동’으로 받아들여졌다.²⁷ 또한 언론은 서

26 오광수, 「삭막한 현실에 대한 분노 담아, 『경향신문』, 1995.10.8.

27 당시 공론은 가사에 대해 자극적이며 현실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를 들어 심의불가판정을 내리고 수정을 요구한다. 그러나 서태지와 아이들은 이에 굴하지 않았고, 이에 앨범 《Come Back Home》에 대해 ‘불법음반’으로 규정하고, 발매 음반사인 반도음반을 불법음반제작 및 배포혐의로 서울지검 등 행정당국에 고발 조취를 취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서태지 4집앨범’ 불법음반 규정 공론 제작사 반도음반’ 고발],

태지와 아이들의 팬덤을 두고 집단히스테리²⁸라고까지 폄훼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해방’의 기쁨을 맛봤다.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BTS가 가진 공통된 문제 의식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꽤 유사한 구석이 많다. 그러나 서태지는 늘 자신을 감추며 신비로운 스타로 남기를 바랐다. 또한 그들의 팬덤 역시 그를 스타로서 숭배하고 경외하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20년의 간격을 두고 탄생한 BTS는 스타와 팬이 가진 수직적 관계를 걷어내고, 수평적 소통 방식을 선택했으며, A.R.M.Y는 그들의 스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대중문화는 진화하였다. BTS와 A.R.M.Y의 관계는 대중문화의 좋은 성숙의 모델이 되고 있다. A.R.M.Y라는 이름 아래에서 환대하고 연대했던 소통의 기억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진화할지는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A.R.M.Y와 BTS는 거대한 성장소설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의 집필자라는 것이다.

5. 나오며

“갑자기 우리 노래를 모두 영어로 부르고, 다른 모든 것을 바꾼다면, 그것은 방탄소년단이 아니다”²⁹라고 말했던 BTS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공연이 중단된 가운데 〈Dynamite〉²⁰²⁰, 〈Butter〉²⁰²¹, 〈Permission to dance〉²⁰²¹과

『동아일보』, 1995.10.28.)

28 허엽, 「X세대 「집단히스테리」 증상, 『동아일보』, 1996.1.24; 오광수, 「서태지 은퇴」, 파문 확산 오빠부대 「집단 히스테리」 증상, 『경향신문』, 1996.1.24; 「서태지 증후군」 대책 시급, 『경향신문』, 1996.1.25.

29 RM의 인터뷰, 『Entertainment Weekly』, 2019.4.1.

같은 영어로 된 노래를 발표한 것은 불가피한 차선책이었다. 덕분에 BTS는 단시간에 세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³⁰ 여기에는 팬데믹으로 인한 단절과 고립감 속에서 고통 받던 이들이 가상의 네트워크로 모여들면서 그동안 막대하게 축적된 BTS관련 영상들을 알고리즘의 마법으로 만나게 된 이유도 한몫을 했다. 코로나 시절 꽤 많은 이들에게 BTS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유일한 빛”³¹이 되어 주었다. 이 과정 속에서 A.R.M.Y는 해외 팬들을 위해 동영상과 노래 가사를 번역해 공유했고, 미국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며 빌보드 차트 진입에 성공시킨 눈물 어린 노력도 더해졌다. 그 사이에 A.R.M.Y의 수는 광범위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으며, “나는 A.R.M.Y야!”라고 말하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특정 연령대를 초월해 더 넓은 세대로 확장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BTS의 서사를 성장소설로 볼 때, 그들의 거대한 성공은 완벽한 대단원의 마무리로 보인다. 로컬의 한계, 작은 소속사의 서러움, 힙합 음악인들 사이에서의 배타와 같은 시련들을 극복하고,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며 마침내 이루어낸 성공은 완벽한 성장 서사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대로 이 소설은 끝이 난 것인가? 이제 어른이 된 BTS의 곁에는 여전히 다양한 세대와 인종들로 이루어진 A.R.M.Y들이 함께 연대하며 서 있다. 그들 앞에 어떤 길이 새롭게 펼쳐질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다른 대중문화의 새 역사를 써 주기를 간절히 기대할 따름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를 바란다.

30 <Dynamite>는 한국인 가수 중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와 빌보드 200에서 1위에 올랐다. 이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셀링 송, '톱 듀오 그룹상',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 '톱 소셜 아티스트'로 4관왕을 이뤘다. <Butter>는 발표와 동시에 빌보드 핫 100 1위로 진입했다.

31 이지행, 『BTS와 이미 컬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195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BTS, 《2 COOL 4 SKOOL》, 2013.
____, 《O!RUL8,2?》, 2013.
____, 《Skool Luv Affair》, 2014.
____, 《화양연화》 pt.1, 2015.
____, 《화양연화》 pt.2, 2015.
____, 《화양연화 Young Forever》, 2016.
____, 《LOVE YOURSELF 承 'Her'》, 2017.
____, 《LOVE YOURSELF 轉 'Tear'》, 2018.
____, 《LOVE YOURSELF 結 'Answer'》, 2018.
〈KBS 명견만리〉, KBS, 2018.6.3.
〈방탄 소년단 UN 연설〉, 미국 유엔 본부, 2018.9.24.
〈인사이드 마이 유니버스(Inside my universe)〉, BANGTAN TV, 2021.9.27.

2. 단행본 및 논문

- 김영대, 『방탄소년단을 리뷰하다』, 알에이치코리아, 2021.
롤랑 바르트, 김희영 역,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선, 2002.
이보영 외, 『성장소설이란 무엇인가』, 청예원, 1999.
이지행, 『BTS와 아미 컬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9.
한병철,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5.
홍석경, 『BTS 길 위에서』, 어크로스, 2021.
A. 반 켄넬·전경수,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2000.

3. 기타자료

- 강동철, 「이 남자의 정체는…'방탄 아빠'」, 『조선일보』, 2017.12.1.
오광수, 「사막한 현실에 대한 분노 담아」, 『경향신문』, 1995.10.8.
이미영, 「방탄소년단, 미(美) 'AMAs' 입성 "믿기지 않는다"」, 『조이뉴스』, 2017.11.20.
이정아, 「방탄소년단의 기록 짚주,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SBS 연예뉴스』, 2017.10.8.
정병호, 「BTS 제이홉 올해도 5.18 추모…광주정신 세계에 알렸다」, 『광주일보』, 2021.5.20
추영준, 「방탄소년단을 글로벌 시대에 마주게 우리도 BTS'로…」, 『세계일보』, 2017.11.23.
최지예, 「방탄소년단, 데뷔 10개월 만에 팬클럽 '아미' 창단식」, 『마이테일리』, 2014.3.31.
황혜진, 「방탄소년단 "서태지 선배님 25주년 콘서트 게스트 영광, 많이 배웠다"」, 『뉴스엔』, 2017.9.3.

Abstract

‘BTS Narrative’ Read as a Coming-of-Age Novel

Han Seung-woo*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the footsteps of BTS over the past 10 years have the character of a coming-of-age novel. The process of boys coming up from the provinces in pursuit of their dreams overcoming countless trials and going beyond the top of the country to the mainstream stage of the world has a similar aspect to the composition of dramatic growth novels. As a borderline between hip-hop and idol, they become otherized in the music world, but their small agency lacked the strength to defend them. BTS put their passion and effort into music and continuously sent it to fans, and the younger generation, who were struggling amid the uniformity and violence in neoliberalism, received it as a message of consolation. As the story of BTS was actively interpreted by A.R.M.Y, it was read as a message of hope and the possibility of solidarity, and it was completed as a growth novel of young people going through this era together. This interaction between BTS and A.R.M.Y can be seen as a cultural example achieved through horizontal communication, rejecting the vertical communication that stars and fandoms have shown so far.

Keywords BTS, coming-of-age novels, neoliberalism, the joy of text, A.R.M.Y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Chung-Ang University.